



# 폭풍성장 '녹색한우' 8개 축협 연합...작년 355억 매출

## 출범 4년만에 매출액 14배 늘어



전남도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가 출범 4년만에 매출액이 13배나 증가하는 등 '폭풍 성장'하고 있다.

녹색한우는 특히 소비 위축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 오히려 매년 매출이 늘어 한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한우는 지난 2008년 전남 서부 8개 축협에서 연합해 출범한 광역브랜드로 1200여 회원 농가에서 약 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협 안심한우 등 유통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구매 상담을 하고 있어 한우농가 판매 희망 물량을 전량 구매해주고 있다.

지난해 나주 산포면에 육가공장을

갖춘 유통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올 6월엔 목포 옥암동에 '녹색한우 프라자'를 개장,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춰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한우 브랜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첫 해인 2008년 28억원(476마리)이던 매출액이 2012년에는 355억원(4797마리)으로 4년만에 12.6배나 늘었다. 올 들어서도 6월 말까지 이미 2900마리를 판매해 연말까지 6000마리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한우 법인에서 자체 도축해 가공·판매하고 있는 물량은 연간 1800마리 수준으로 참여 축협 판매장, 수

도권 가맹점 및 서울축협 등 다양한 채널로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몰을 통한 인터넷 판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마트 소프몰에 입점해 미국 교민이 국내 친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녹색한우를 구매하고 있어 간접 수출실적도 올리고 있다.

판매망도 다양하다. 광주 롯데백화점 내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목포 옥암동에 개장한 한우프라자는 한우고기 판매 및 전문 식당으로 운영해 식당 분위기와 맛, 가격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을 광덕리 화순축협한우프라

자와 도곡관매장, 영암 신복면의 영암축협한우프라자, 무안읍 목무신축협한우프라자, 목포 하담의 목무신축협목포지점 등에서도 구매 및 시식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브랜드 경영에 힘입어 녹색한우는 2012 농식품부 브랜드경영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찬주 녹색한우 대표는 "정상들이 잘 기른 한우를 1원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유통채널을 다양하게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장기 고수들 해남서 지략대결

## 내달 31일 민속장기대회

세대를 초월해 건전한 가족놀이로 재조명되고 있는 장기대회가 해남군에서 개최된다.

해남군은 23일 "오는 8월31일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평결해남 민속장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로 열리는 해남 민속장기대회는 (사)해남한초장기동호회 주최로 초등부와 중등부, 일반부, 여성부, 복식조(초등+일반)로 나뉘어 치러진다. 우승 등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전라남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8월23일까지이며, 일반부는 참가비 1만원이며, 나머지는 무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더 안전해진 목포 밤 바닷길

## 동기점멸시스템 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23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해 주요 항로상 등부표에 동기점멸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동기점멸시스템은 인공위성(GPS)에서 전송되는 시각정보를 기반으로 등대의 불빛을 동기화시켜 같은 주기로 동시 점멸되게 한다.

이는 야간에 입출항 하는 선박들이 해상 항로를 비행기 활주처럼 인

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지원한다.

이번에 설치한 동기점멸시스템은 목포대교 부근의 등부표 6기이며, 이들은 동시에 6초를 주기로 2번씩 깜빡이게 된다.

류택열 해사안전시설과장은 "동기점멸시스템의 구축으로 항로가 비행기 활주로 같이 육안시각이 가능해져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해상교통 흐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새얼굴 "주민과 소통·4대악 척결 최우선"

## 나원오 완도경찰서장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완도 만들기'라는 목표를 향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제67대 완도서장에 나원오(47) 총경이 최근 취임했다.

나 서장은 취임사에서 "4대 사회악 척결, 정정당당한 법 집행, 경찰 업무 전문성, 주민과의 소통 등 4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경찰서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경찰관의 일탈과 과오는 몇 곱절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칫, 국민의 분노 섞인 비난과

질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으로 경찰대 4기인 그는 지난 2013년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관계로는 김미라씨와의 사이에 2녀가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잘 자라 다시 보자"

해남군 공무원들이 최근 북일 내동 등에서 꽃게 종묘를 방묘하고 있다. 군은 올해 3억6500만원을 들여 꼬막 등 패류 2종 28t과 어류와 갑각류 7종 417만4000미를 방류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해안선 40m 이내 건축 금지"

신안군에서는 앞으로 해안선 40m 내에 모든 건축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신안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번 지진이 발생했으며, 군은 지진과 해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만수위 기준 해안선에서 40m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41개사에 통보했다. 또 재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지진과 해일로부터 가장 취약한 주요 선착장인

흑산 거가도 선착장, 흥도 선착장, 흑산 예리 선착장, 압해 송공선착장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CCTV와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들 시스템을 신안군 종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24시간 관리요원이 상주하도록 해 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4월21일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올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인 진도 4.9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신안=이상선기자 sslee@

# 기장·메밀·보리 年 3모작 '도전'

## 정읍농기센터, 지구온난화 대응 울 첫 시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 연 3기작 작부체계(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확립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고소득 대체작물 육성 및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재배 시도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5월 초 기장을 파종한 뒤 7월 말~8월 초 수확하고 8월 중순 메밀을 파종한 후 10월 하순에 수확하

며, 11월 초순 총채보리를 파종, 5월 초 수확하는 연 3기작 작부체계를 확립했다. 연 3기작 작부체계가 확립되면 ha당 연간 최소 2300만원의 소득이 추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시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김생기 시장은 "기상이변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떨어지고 작물선택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 3기작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정읍 대표작물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기술센터는 선도농



기장



메밀



보리

가 5곳의 12.3ha에 조생종 기장을 재배, 경제성 분석 및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농가 5곳은 지난 5월 ha당 종자 100kg을 파종, 지난 18일부터 수확에 나서 모두 86t

을 거둬들여 모두 4억3000만원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을 재배하고 있는 은명규씨는 "올해 보리 재배에 실패하고 대체작물로 조생종 기장을 재배했는데, 이

렇게 수확량이 많은 줄은 몰랐다"며 "이제 메밀을 심어 10월 초 '두산산청정 메밀 축제'에 공급하면 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그림으로 환경보호 되새겨요" 부안 환경 전국미술대회 전국 응모전

부안군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주관 '제5회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포스터, 만화 전국 미술대회'가 전국 유치·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응모기간은 23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로 출품작은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사무실(063-581-5600)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미술대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주제로 펼쳐지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유치부, 초등학생부, 중·고등학생부로 나뉘어 개인 응모할 수 있다.

본선 최종 수상자는 오는 10월 10일로 발표될 예정이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에서 지역 예선을 치른 뒤 최종 입상작은 중앙본부에 제출돼 심사를 받아 결정된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서홍석(50) 본부장은 "이번 대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자기 실현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많은 학생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남원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학의사가 없는 주생·송동·사매·이백·이영면 등 5개 면에 주천면 등 8개면의 공중보건학의사를 투입하는 '이동진료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주생면에서 최근 마을주민들을 진료하는 공중보건학의사들. /남원=백선기자 bs8787@

# 단신

## 정읍시, 7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정읍시는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관내 칠보 물레마유원지, 내장산 야영장, 정읍천 어린이 물놀이장, 황토현수터널 야영장 등 행락인구가 집중되는 7개 주요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4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물

놀이장과 야영장,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을 받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주요 피서지의 관리사무소 등에는 부당요금 판별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서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호객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 '청소년 마을공동체 벽화그리기' 발대

(사)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부안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일 부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공공문화 예술 가구기 프로젝트 - 청소년 마을공동체 벽화그리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서는 벽화그리기 동아리

청소년들과 단체 관계자, 지도강사 등 25명이 참석해 마을공동체 벽화그리기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장소인 부안을 향교마을을 직접 방문해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남원시, 다음달 1일~5일 허브&블랙푸드 축제

2013 허브&블랙푸드 축제가 8월1일부터 5일까지 '지리산 맑은 물, 상쾌한 허브향'을 주제로 운봉 허브밸리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물놀이장, 힐링캠핑장, 허브음식전국요리경연, 바비큐경연, 허브스토리텔링경연, 허브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또 허브건강체험관, 허브일반체합장, 포도체험장, 블랙푸드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와 남원허브산업육성사업단은 체험장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만지고 먹고 만들어 보도록 해 남원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허브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전주시, 체육시설 4개소 보수공사 완료

전주시는 23일 "화산체육관,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등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들 4

개 시설물에서 부분적으로 균열 등을 발견해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해 신속하게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